

시간을 넘는

공간 잇기

시공테크 박기석 대표

전시문화 기업 '시공테크'의 박기석 대표는 새벽 5시 30분이면 어김없이 하루를 시작한다. 한시간 쯤 후인 6시 40분이면 또 어김없이 국선도 도장에서 운동중인 그를 만날 수 있다. 17년간 이어온 사업도 생활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수요가 창출되지도 않은 국내 전시사업시장의 불모지에서 시장을 예측하며 조금씩 수요를 만들어냈고, 정해진 시간표대로 성장해 시장을 주도하는 오늘의 시공테크를 일궈냈다. 이런 박대표는 '기업의 정점은 무한하며, 벤처는 항상 미래형이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얘기한다. 그가 얘기하는 무한함과 시공테크의 미래형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시 간 과 공 간 의 만 남 , 문 화 와 기 술 의 결 합

30여 년 전, 박기석 대표는 무역인이었다. 사우디에서 시작한 첫 직장에서 그랬고, 자신의 회사를 차린 후 본격적으로 중계무역을 시작한 25년 전에도 그는 여전히 무역인이었다. 적어도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세계 도처를 맨발로 누비던 혈기 왕성한 젊은 사업가 박대표에게는 잊지 못할 주말이 기다리고 있었다. 출장차 들른 미국에서 처음으로 디즈니랜드라는 곳을 가본 것이다. 잠시도 눈을 땔 수 없게 만드는 현란한 공연, 과학과 문화가 결합된 각종 전시는 그에게 무한한 상상력을 불러일으켰고, 신선한 자극이 되었다. 그곳은 아직도 박대표에게 충격과 감탄의 장소로 남아있다.

“그땐 정말 대단했어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제대로 된 테마파크나 과학관이 없었거든요, 박물관도 마찬가지고요. 난생처음 본 그 광경은 마치 눈을 뜨고 꿈을 꾸는 기분이었죠.”

그후 미국을 들를 때면 박대표는 어김없이 그곳을 찾았고, 마침내 푸른 꿈을 가득안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10여 년간 세계를 둘러보며 꾸는 꿈을 현실에서 이룰 순간이 온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디즈니랜드같은 테마파크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꿈의 세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거죠. 야심차게 사업을 시작했지만 고생 참 많았습니다. 시장이 있었어야죠. 하지만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건 주문은 ‘끝까지 하면 반드시 된다’ 였습니다.”

1988년 박대표는 힘든 상황이었지만, 후배 다섯명과 한조각 한조각 꿈을 짜맞추기 시작했다. 17년간 이어온 그의 주문은 국내 전시의 역사를 최초로 쓰게 했고, 그 꿈들은 특허증과 상장이 되어 회사 이곳저곳에 훈장처럼 걸렸다.

“전시공간은 자랑하고 싶은 것을 담는 공간입니다. 그곳에 담기는 것이 과거의 것이 될 수도 미래의 것일 수도 있지만 늘 신기한 것, 중요한 것이 담기죠. 그래서 전시공간은 무한한 미래가 담긴 보물섬입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 시공테크는 우리나라에서 문화재 보존시스템관련 특허를 가장 많은 보유한 회사가 되었고, 아직도 진열장 제작을 위해 25억원의 개발비를 쏟아 붓고 있다. 미래를 담는 무한한 가능성의 보물섬이기 때문이다.

시 공 테 크 의 ‘ 보 물 섬 ’

시공테크에는 보물섬이 참 많다. 프리랜서를 포함해 총 200여 명의 직원이 바로 보물섬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자기 분야의 고수들이니 시공테크의 미래가 담긴 보물이다. 회사의 주력 아이템이 영상제작과 모형제작이다 보니 건축, 영상, 사진, 문학, 디자인 등 창의력을 갖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무엇보다 필요하였고 이들은 각종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100여 건이 넘는 특허와 지적재산권을 만들어 온 것이다. 시공테크의 보물은 또 있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마다 우리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유사장소나 연구기관, 자료센터를 뒤지며 수없이 많은 텍스트와 사진을 모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쌓이는 자료들이 바로 시공테크의 현재요, 또다른 미래죠.”

박대표는 그간의 특허와 자료들을 한데 모아 DB화하였고, 이미 책으로도 출간해 보관 중이다. 시공테크가 업계를 리드하는 할 수 있었던 첫째조건은 이렇듯 세월을 쌓아온 성과물임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올해 시공테크는 700여 억원의 매출을 기대한다고 하지만, 사실 더 큰 욕심을 내고 있다. 회사에 보물이 들어나 있고 작년에 출범한 중국법인에서만도 벌써 22억의 수주를 따냈기에 그 가능성은 더욱 높다.

박대표의 집무실에는 각기 다른 시간을 가는 세계의 시계가 있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시간이고, 나머지는 미국과 유럽 시간이다.

“전시문화가 잘 발달된 그들이 늘 경쟁자들입니다. 제가 잠시 잠깐 쉬고 있을 때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지금 밤인데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시계를 보며 한번씩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저를 채찍질하는 시계들이죠.”

초심을 간직한 박대표와 시공테크의 보물들은 요즘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다. 지금의 디지털콘텐츠를 더욱 강화해 인터넷 지식정보업체로 거듭난다는 것이다. 이들의 꿈은 늘 미래진행형이다.



시 공 테 크 의 비 전 , 기 술 백 서

시공테크의 자랑거리는 단연 기술개발백서다. 백서에는 시간(時)과 공간(空)을 넘나들며 그간 이룩한 그들만의 기술(tech)이 가득차 있다. 비단, 기술뿐 아니라 시공테크가 보유한 각종 콘텐츠와 시스템도 도서화해 보유중이다. 이런 콘텐츠가 경쟁력을 가지는 시대는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시간과 공간을 넘는 시공테크만의 미래형 비전일 것이다.